

월/요/광/장

장병완



일반적으로 특별한 것은 좋고 우수하며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설령 '보통'보다는 '특별한' 특이, 일반고교보다는 특목고교가, 일반 경제지역보다는 특별 경제지역이 더 선호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별회계는 사업과 재원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더 선호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었는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약 5조원

그런데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임

수밖에 없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이 자기에게 돌아올 걸까는 생각이 않고 막연하게 세금을 인하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은 쓸쓸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별한 것,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그 사업을 지키고 성공시키려는 투철한 의식으로 무장된 주체가 필수적이며 이 사업의 경우 국비 예산 확보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야 했다.

라나라에서 일을 하고 번 소득에 대해 세금 내는 사람들의 비율은 약 50%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각종 공제 혜택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 자녀를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용되었어야 할 국민 세금 중에서 이 금액만큼 덜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깨닫게 된다면 과거의 선출 방식보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 더 부합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바람직한 제도라고 인정해 줄까?

시설

일보다 의정비 인상에 신경쓴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의정비만 크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0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 제출한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자료'에 따르면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의정비는 지난해보다 13%, 기초의원은 36%나 인상됐다.

건, 기초의원은 0.7건에 불과했다. 특히 신안, 보성, 영암군 등 8개 기초의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기본적인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박태환 올림픽 수영 제패 국민적 패거다

'마린 보이' 박태환이 한국 수영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박태환은 베이징을 뒤흔들고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기적을 이뤄냈다.

박태환은 지난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400m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우승,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 제패이자 동양인 남자 첫 자유형 우승이란 기록을 세운 것이다.

법조칼럼

김정완



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변호사의 변론이나 수임료에 대한 의뢰인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를 방영한 바 있다. 특히 법률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여 변호사에 관한 일화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많은 관심을 촉발했다.

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 소송의 난이도나 소송기간 등 수임료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변호사 수임료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기고

김세곤



최근 부임 인사자 전남도청을 방문했다. 청사를 들어가면서 문 위에 '이 난영문'이라고 적혀 있는 글씨를 보았다.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여가수 이난영을 이 문에서 만나게 되다니... 몇 년 전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는데.

은 문인, 미술가, 가수, 국악인, 정치가, 유학자 그리고 국문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등 다양하다.

변호사 보수에 대한 단상

대해서도 가끔 보도된 적이 있다. 그러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감출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서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성찰 대신 불성실하고 돈만 아는 부정적인 인식만이 팽배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스러움도 갖게 된다.

호사보수만큼 받기 못하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요즘 현실이기도 하다. 어쨌거나 법률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로서 변호사 스스로 의지를 갖고 적극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변호사협회 차원의 자정노력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도의 남도인물 예찬

가 깊었다. 비단, 문만이 아니었다. 1층 로비는 '윤선도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청사를 올라가면서 안내관을 보니 '장보고 전망대', '김대중 강당', '황현 교육장', '왕인실', '정약용실', '서재필실', '정철실', '송순실', '심청실', '김홍도의실' 등 여러 실, '송만갑방', '김연수방', '홍길동 단련장', '강한 지식정보센터' 등 남도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들의 이름이 여러 군데 붙여져 있었다.

한 간단한 약력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청사 현관에 비치하고 방문객에게 제공하면 좋겠다.

은행 업무시간 1시간 단축 반대

은행 업무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다. 이 시간에 ATM 등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업무시간이 지나면 수수료를 받는다.

연장근무를 바라는 시민들은 의외로 많다. 그런데도 은행권에서는 오히려 창구 업무시간을 단축하거나 1시간 일찍 당겨서 시작해 1시간 일찍 끝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나친 선행학습, 청소년 인격형성 기회 빼앗아

오랫동안 교육분야 연구와 관심을 가져왔다. 요즘 박학을 맞아 선행학습들을 많이 시키고 있다. 특목고를 보내겠다는 욕심에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까지 선행학습 열풍이다.

또 하나 문제는 맹목적으로 학원의 관리자를 맡아 보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지나치게 학원에 의존하다 보면 성적은 오르겠지만 인생을 개척하고 헤쳐나갈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無等鼓

지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태평양. 적도를 기준으로 태평양의 직경은 1만6천km, 북극의 베링해에서 남극까지 남북의 길이는 1만4천km에 이른다. 태평양의 섬은 2만5천개. 태평양의 전 세계 섬을 합친 수보다 많다.

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난사군도를 놓고 영토분쟁중이며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몰두하고 있다.

바다쟁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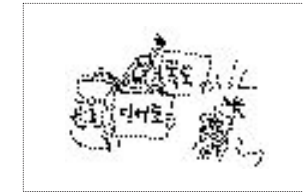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